

정부 “준예산 편성시 25만명 실직”

정부는 올해 안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을 편성할 경우 25만명이 실직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8년 예산안 처리지연 문제점'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상립되지 못할 경우에 헌법·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와 법률상 지출의무를 이행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정부가 편성하게 된다.

정부는 자료를 통해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1조6천억원에 이르는 직접 고용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25만명의 실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가사·간병도우미 1

■ '2008년 예산안 처리지연 문제점' 자료 배포

1조6천억 규모 직접 고용사업 진행 못해

만명 ▲장애이화동보조인 1만3천명 ▲노인 일자리 5만8천명 ▲방문보건 간호사 3천명 ▲아이돌보미 2천명 등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중단되면서 아동시설 285개, 노인 시설 283개, 장애인시설 253개, 부랑인 시설 37개 등이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한계 중소기업이 부도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받

는 업체는 21만5천개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 5만8천개 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준예산 편성으로 지원이 안 되면 24만8천명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초에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을 받고 사전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서민 17만5천가구도 심각한 혼란과 분쟁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속도로·국도·지방도·부 산신항·국제공항 등의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고 여수엑스포 박람회, 인천

아시아게임 등의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데도 문제가 생길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예산안 중 7조원을 감액하고 2조원을 증액해 5조원을 순삭감하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순삭감 5조원은 과거 국회의 삭감 규모에 비해 4~5배에 이르는 데다 대규모로 줄이면 양극화 완화, 교육 투자, 남북화해 등 정권과 관계없이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국제발행 축소를 주장하면서 지역구 사업 증액을 요구하거나 민생안정을 강조하면서 복지, 일자리 창출, 농어민 지원사업 등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美 또 총기난사...최소 9명 사망

네브래스카주 쇼핑센터

20세 범인 총격 후 자살

미국에서 또 다시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최소 9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해 총격을 주고 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州) 오마하의 웨스트로즈 몰에서 5일 오후(현지시간) 한 청년이 쇼핑객들을 향해 소총을 무차별 난사, 8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으며 범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부상자들 중 2명은 중태이다.

로버트 A. 호킨스(20)라고 신원이 밝혀진 범인은 이날 오후 1시50분경 웨스트로즈 몰 3층 한 가게의 발코니에서 쇼핑객들을 향해 아래로 총을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목격자들은 갑자기 5~6발의 총성이 먼저 울린 뒤, 15~20발의 총격 소리가 잇따랐으며 쇼핑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긴급히 몸을 피하는 등 순식간



지난 5일 오후(현지시간)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쇼핑몰에서 응급구조원들이 희생자들을 긴급 이송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에 이수라장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범인이 3층에서 총을 난사하는 바람에 희생자들은 2~3층에서 많았으며 자살 흔적이 뚜렷한 범인의 시신도 3층에서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쇼핑센터를 봉쇄하고 사람들의 진입을 막았으며, 일부 쇼핑객들은 머리에 손을 올리고

황급히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우아하게 죽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가 범인의 집에서 모친에 의해 발견됐다고 익명을 요구한 현지 경찰은 말했다. 범인은 군대식 헤어스타일에 군복 색깔의 위장복을 입었으며, 검은 색 가방을 맨 것으로 전해

졌다. /워싱턴-연합뉴스



한덕수 총리가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예산안 심의·의결, 조속 처리해 달라”

한덕수 총리 국회에 촉구

한덕수 총리는 6일 “각 정당들의 합의하에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예산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새해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이 진행중에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민생을 위한 국회의 노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한 총리는 “나라살림의 근간인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상 의결시한인 12

월2일을 넘겼고, 오는 9일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지자체와 정부 출연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는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사업추진도 어렵게 될 것이며, 내년 1월31일부터 노인들께 지급키로 돼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준비가 어려워 지는 등 민생이 어려워진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하루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예산안의 필수 부수법안인 세법심사도 11월20일 이후에는 이에 중단된 상태이고, 11월30일 부터 지연되면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의 회견에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장병안 기획예산처, 임상규 농림, 장하진 여성가족, 변재진 복지부장관과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문산~봉동 화물열차

11일부터 운행 개시

남북, 군사보장합의서 채택

남측 문산역과 북측 봉동역(개성공단 입구) 사이를 오가는 경의선 화물열차가 양측이 합의한 대로 오는 11일 운행을 시작한다.

남측은 5일 오전 10시 관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군사 실무회담을 열어 문산~봉동 화물열차 운행에 필요한 8개 항의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 서명했다.

이에 따라 문산~봉동 화물열차는 11일부터 매일 오전 9시에 출발, 오후 2시 귀환한다.

군사보장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열차에 승선하는 인원 명단과 열차 현황, 적재 화물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 시간 등을 24시간 전에 상호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관리지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기관차 앞면 오른쪽 상단에 주황색 깃발(50 x 40cm)을 부착하도록 했다. 기차의 운행속도는 20~60km/h로 제한했다.

특히 열차 운행시 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바로 상호 통보하는 등 상태 측의 구조차량과 구조요원의 긴급통행을 보장했다. /연합뉴스

檢 “삼성 비자금 조성·운용 여부 추적”

최근 7년간 자금 흐름 파악 주력...삼성엔 변호인 선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삼성측이 조작적이고 대규모로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흔적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6일 브리핑에서 “삼성측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7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실적으로 입출금 자료의 보존연한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5년 남짓에 가능한 범위에서 거래내역을 들여

다보고 있다는 의미이며 금융자료는 최대한 확보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검찰은 비자금 의혹 확인을 위해 크게 4개 경로로 나눠 ▲삼성측의 차명인식 계좌 100여개에 대한 추적 ▲김용철 변호사 명의 계좌 20여개에 대한 추적 ▲압수물 분석·정리 및 전산자료 분석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기초 수사자료 수집 등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계좌추적의 경우 누가 계좌를 개설했고 처음 개설시 들어온 자금이 누구의 것이며 어떤 흐름으로

입·출금됐는지를 살피고 있다. 특검에 넘겨줄 만한 의미있는 압수물들을 정리하고 있고, 전산자료도 어떤 의미가 있는 자료들인지를 확인하는 중이다.

김 차장검사는 또 “김 변호사가 차명인식 계좌라고 지목한 4개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차명인식 계좌와 연결된 계좌들도 추적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에 7일째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한편 삼성그룹측은 외부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립스틱·매니큐어에 유방암 유발 물질”

립스틱과 매니큐어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폭스체이스 암센터의 연구진은 최근 의학전문지 'BMC

유전체학(BMC Genomics)'에 발표한 논문에서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가 유방 조직의 건강한 발육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실험용 어미 쥐에게 BBP를 먹인 뒤 모유를 통해 BBP를 새끼 쥐에게 흡수시키는 실험

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새끼 쥐에게 전달된 BBP가 미 환경보호국의 허용치 이내로 추정되는 분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컷 새끼 쥐의 젖샘 세포조직에서 유전자 변이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어린 나이에 이 화학물에 노출되더라도 훗날 신체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겨울방학 교육학+전공특강
 2009학년도 새롭게 변화된 시험제도 완벽 대응 기회!!
 최고의 직종들을 자랑하는 현대고시원용 교수진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영어 류호강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은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공민중개사/주책관리사 합격설명회=
 배주- (화,목) 오후 6시-(토) 오후 3시

현대고시학원 동부경철서원
 (062)222-6790
 www.hgosi.net

= '08년 국가+지방직 시험대비, 동계방학 대강좌! =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강좌안내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모호직, 소방직, 전자직, 지직, 특목직, 불특직, 불리화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 12월 17일 주·야 (휴일)반모집 (협재예약)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철서원
 (동양초교 4층) 222-4560
 www.mdgoal.co.kr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9급 공무원 겨울방학 대강좌

개강 :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행정직, 검찰직, 사법부직, 국공립, 교정직, 소방직, 농림직, 특목직, 전자직, 불특직, 불리화

2008 공무원 합격설명회

1차 (12월 15일) 15:30
 2차 (12월 22일) 18:30

개강 1차 12월 17일 2차 12월 22일 대강 1월 2일 사전예약수중
 동부경철서원 (동양초교 4층)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훈 부대표
 (062)252-0252

www.simmons.co.kr

당신의 'S' 라인은 건강하십니까?

시애틀에서 'S' 라인이 누웠을 때도 그대로 세계특허 시몬스 로켓소프트링만이 가능합니다

1936년 시몬스침대의 역사는 편안함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체학을 따라 온 몸을 골고루 받쳐주는 시몬스 독자개발의 세계특허 로켓소프트링은 서있을 때의 'S' 라인을 누웠을 때도 그대로 유지시켜줌으로써 가장 편안한 상태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재빨리 골고루 받쳐주지 못하는 흠여나 돌로 만든 침대와는 달리 연체의 'S' 라인을 그대로 지켜주는 시몬스침대 - 시몬스 로켓소프트링

상장기여 아동과 청소년, 늙어 무거운 수험생, 피곤한 업무로 피로에 지친 직장인, 'S' 라인의 몸매를 유지해야 하는 여성에게 좋습니다. 이제, 시몬스의 편안함을 꼭꼭 느껴보십시오.

「침대의 생명은 'S' 라인에 있다」

장성적인 사람의 척추는 옆에서 보았을 때 마치 'S' 자의 모양처럼 휘어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서서 걷는 인간의 신체 특성에 의한 것으로서 생명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견디기 위해 신체가 받는 충격을 완충시켜주기 위한 자연적 구조입니다. 따라서 누웠을 때도 서있을 때와 같은 'S' 자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침대가 가장 좋은 침대입니다.

시몬스 로켓소프트링 매트리스는 로켓소프트링의 아랍바. 형태는 보장할 수 있는 로켓소프트링의 원리만큼 꼭꼭 포용할 수 있습니다. 휴식중에 주의하십시오.

시몬스침대

취급대리점

롯데백화점 (062)221-1760

현대백화점 (062)510-7851

빛고을가구백화점 1층 (062)959-5800

금남로점 (수영초교 정문앞) (062)527-1575